

한국적 샤머니즘의 간호학적 고찰

김 애 리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

I. 서 론

1980년대에 들어서 대상자와 의료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맥락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질병과 건강의 개념이 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고 그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공유되는 면이 많을 때 치료가 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강신표, 1992).

건강과 질병상태에 대한 인식은 그 개인이 속한 문화적 배경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종종 그 문화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건강과 질병은 간호의 주요 개념으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체로서 이해되며, 병에 대한 관념은 병의 원인과 치료, 인식, 태도 전반을 망라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건강과 질병,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해석되고 처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특정한 지식과 신앙체계, 역할, 의료행위 및 조직적인 사회적 행위가 포함되는 일종의 문화 현상이며 간호란 인간(간호 대상자)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면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 문화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선행하여 문화현상에 따른 건강, 질병, 돌봄에 대한 가치, 규범, 관행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문화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해주며 따라서 간호 실무, 연구, 교육에 필수 불가

결하기 때문이다(최영희, 1992).

조선 전통 사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 불, 선 및 무(巫)등에 내재하는 신앙체계는 한국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문화규범의 실상을 파악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강신표, 1992).

그 중 무(巫)는 옛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에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원강(源綱)노릇을 하였으며 가장 원초적인 자연 종교이며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는 민간 신앙이라 할 수 있다(임석재 1986; 장수근 1986). 무교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종교로 5세기부터는 오랜 한국 문화를 지배해온 불교, 유교, 도교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까지도 면밀히 이어내려오고 있는 가장 한국적이며 주체 사상이 들어있는 민족 문화의 정수인데(최길성, 1985: 1990), 우리 민족의 정신구조의 심층부에는 무속이 부동의 모습으로 있고 이런 뜻으로 오늘날 서구식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런 문화에 전적으로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변용시켜 수용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는 소위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로서 대응하지 않고 고풍적인 巫俗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임석재, 1986). 이것은 의료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민속적인 요소는 크게는 우주관, 작계는 인생관 등과 관련된 문화 총체성을 갖추고 있으며 의학적인 측면까지도 구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구식 현대 의학이라 할지라도 질병 그 자체에 대한 사고방식은 물론 병리론이나 치료방식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의 영향내지 관습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전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간호현

장에서도 많이 느껴온 바이다.

그러므로, 무속을 언제까지나 불원(不願)의 항아리 속에다 밀봉하여 낡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규명하여 거기서 얻어진 지식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문화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나 무속은 오랜 옛날부터 국가기관으로부터 갖은 탄압과 박해를 받아 왔고 무인들과 그 가족들은 최하급의 천인으로 멸시 당하여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된 강인성, 천대 무시하면서도 무인에게 의지하려는 민족심리 등의 명제가 문화 연구자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있다(임 석재, 1986).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무속 연구는 주로 외국인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화구조의 맥락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민속학, 인류학, 종교학 등에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일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반성은 간호학에서도 부각되고 있는데 즉,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주는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이론이나 방법들을 적용시켜 오면서 그것이 곧 한국의 사회문화 상황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이며, 과학적인 것이라는 지적일원주의하에서 우리 사회문화에서 축적되어온 경험이나 습관의 총체를 과학발달의 수준 차이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사고는 외국의 연구자로나 가치 기준이 모든 문화 상황에 일반화될 수 있거나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어 우리 사회문화에서의 간호의 본질을 규명하기 보다는 왜곡을, 또한 외국의 간호현상만을 이해하도록 유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한국 전통문화속의 대상자를 돕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최 영희, 1992).

더우기 단순한 미신 타파의 개념에서 배척시켜온 샤머니즘은 바른 개념정의 조차도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용어조차도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간호사 자신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간호의 개념을 염두해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다루는 방

법에 대해 대상자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문화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적 시점에서 즉, 통시적으로 문화를 파악하고 정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한 순한 발전과 지역적인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의 축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하의 지평은 열릴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간호영역으로서의 문화간호가 펼쳐질 수 있음을(최 영희, 1992) 깊이 인식하고 대상자의 기본신념과 가치에 근거한 우리실정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뿌리에 깊이 침잠되어 있는 어떤 실체의 구조 및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 정서속에 흐르며 커다란 근원을 이루고 있는 샤머니즘에 대한 견해를 좀더 포괄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며, 아울러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한국적인 샤머니즘에 대해 좀더 올바른 시각과 더불어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어떤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사적 전개를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유 동식, 1985) 샤머니즘의 선사시대로부터의 정의와 기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고대와 현재 한국샤머니즘의 질병관을 간호학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샤머니즘과 무교

1) 샤머니즘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샤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규정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샤머니즘은 하나의 정의나 개념 속에 포섭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것으로, 유명한 샤머니즘의 거장 Maricea Eliade는 엄밀한 의미에서 샤머니즘은 교래의 접신술 — 신비주의인 동시에 주술이자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 — 의 하나이다로 정의하며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유목민족의 샤머니즘을 샤머니즘의 전형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그 핵심은 엑스타시의 체험에 있고 샤먼의 낫이 보호신의 도움으로 천계나 지하계로 마력(魔力)에 의한 여행을 감행한다는 특이한 이념에 있다고 보았다. 슈뢰더(1964)는 “인간의 제도화되고 형태에 매어있는, 그리

고 공동체에 봉사할 목적을 지닌 저승과 엑스타시적 결합"이며, "엑스타시적으로 지향하는 존재의 변용(變容)이다"라고 했다. 홀트크란츠(1988)은 샤머니즘을 어떤 특정지역의 종교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 자체가 종교가 아니고 현상이며 복합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샤머니즘이 포함하고 있는 요인과 일반적인 동기에 의해 정의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샤머니즘의 중심 사상은 전문적 강신적 매개자인 샤먼의 망아적 경험에 의해 영계와 접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샤머니즘에는 네 가지 중요한 구성 요인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첫째 이념적 조건으로 영계가 있고, 그것과 접촉한다는 것, 둘째 인간 집단을 위한 행위자로서의 샤먼이 있고, 셋째 수호신의 강신으로 인하여 샤먼이 인정된다는 사실, 넷째 샤먼의 비상한 망아적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샤머니즘의 정의는 이들 가운데 한 두 가지를 결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샤머니즘은 문화사적으로 본다면 선사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수렵, 목축, 농경 등 각종 문화층을 거쳐서 현대에까지 존속하고 있는 종교현상이다. 이는 실로 인류가 지닌 가장 오랜 문화이며, 하나의 역사를 넘어서 각종 민족과 그 사회구조, 풍토, 역사적 환경 등을 따라 여러 갈래의 분화 또는 습합(習合)을 이루어 가장 생명력이 긴 문화소산이다(堀一郎). 그리고 그 분포범위를 보면 동북 아시아, 중앙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대륙, 인도네시아, 호주 지역의 일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와 유럽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세계의 민족 사이에 퍼져 있는 가장 큰 종교현상이다. 그리고 그 기능면으로 보더라도 영매 주술적 치료, 점괘, 강신술(降神術), 노래와 춤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샤머니즘은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한堀一郎은 "샤먼이라고 하는 엑스타시 기술을 몸에 터득한 특수한 주술-종교가를 중심으로 그를 에워싼 신자의 무리들에 의해 형성된 종교현상이며, 주술적인 동시에 다분히 신비적이며 밀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샤머니즘이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말은 샤먼이다. 요컨대 샤머니즘의 개념은 무당인 샤먼이 무엇이냐 하는 규정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또한 샤머니즘이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어 대체로 주술-종교체계(magico-religious system)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는 견해도 우세하다. 그러나 고등종교의 우수함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원시적 주술, 혹은 이른바 미신과 무턱대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리하여 "샤머니즘적"이라 하면 "미신적인 것"의 대명사로 쓰이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런 경향은 현재 한국학계에서도 간혹 발견된다(이부영, 1993). 그러기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나 기독교 등 외래기성종교(外來既成宗教)를 제외한 모든 종교현상과 주술적 행위를 총괄하여 샤머니즘이라고 마구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의 개념을 단순하게 규정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유동식, 1983).

샤머니즘은 시베리아 전체 민족에 걸쳐 종교 형태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내용상 민족에 따라 다른점이 많다. 퉁구스족은 shaman을 saman이라고 하는데, [홍분하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이 18세기경에 유럽에 들어가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테서부터 국제학술용어로 되었다. 종족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공동체의 강력한 권위자, 사제로서 신령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고 사자의 넋을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영혼의 인도자(psychopomos)로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고행자풍의 이적을 행하며 신비가 노릇도하며 시인 노릇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와 북소리로써 유도된 망아상태(忘我狀態, Ecstasy)에 들어갔고 그 망아상태에서 보호신의 도움을 받아 천상계와 지하계로 여행하거나 또는 신령이 그에게 강림하는 것을 경험해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교섭을 갖는 것으로 믿고 있다. 여기에서 초 자연적인 신령의 힘을 빌리거나 영을 구사하므로써 병을 고치고 예언, 점괘 등 신탁을 얘기했다.

이 강력한 정동반응을 수반한 망아 체험은 샤머니즘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는데 샤먼들은 스스로 망아체험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영력을 얻기위해 가진 고행을 감수하며 시련을 겪어야 했고 그러한 입무(入巫,

Initiation)의 고행과 시련을 이겨낸 자로서 공동체 성원으로 부터 더욱 강력한 존경과 기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망아체현의 중요성이나 이에 수반된 독특한 이념, 보호신의 특이한 역할 등은 바로 샤먼이 원시종족의 사제장이나 일반 마술사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했다(이부영, 1970). 심리학자로서 샤머니즘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위기상황에 있는 심리 상태에 드러남 혹은 퇴행적인 심리 상태의 드러남으로 이 샤머니즘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샤머니즘을 이상상태(異狀狀態)의 심리적 행동에 견주거나 히스테리 혹은 간질병 같은 정신병의 유형으로 갈래지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데를 비롯한 학자들은 이것에 반대를 하고 있으며 다만 정신병적으로 비추어 지는것은 다른 종교에서의 소명과 마찬가지로 샤먼으로서의 소명 역시 위기, 즉 장차 샤먼이 될 사람의 정신적 평행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상태의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현(聖賢, 히에로파니)의 변증법"이라고 부르는 것-즉 성(聖)과 속(俗)의 극단적인 분화와 이에 따르는 현실로부터의 괴리-이 우리들 심성이 비치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엘리야데는 입무(入巫)과정의 병적 현상을 종교적 이니시에이션에서 경험하는 엑스타시 체험으로 이해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샤먼을 세속인으로 부터 신령을 다루게 하는 종교 전문가로 변하게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다. 더더욱 이 체현을 반복하면서 엑스타시를 자유로이 하는 기술자가 되며 자기의 병을 극복할 뿐 아니라 다른사람의 병도 고쳐 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빙의라는 말은 귀신의 범접에 의해서 병이 생긴 경우와 혼돈되기 쉬우므로 조절된 빙의(Controlled possession)와 조절되지 않은 빙의(uncontrolled possession)를 나누어, 전자는 샤먼의 경우에 일어나는 빙의로서 병자의 경우와 구별하고 있다.

엘리야데는 샤먼을 엑스타시의 대가(master of ecstasy)라고 칭했으며 Raymond Firth(1959)는 샤먼을 신령의 대가(master of spirits)라고 하며 영감을 얻은 사제(inspired priest)이며 신경을 성육화(incarnate)하고 자의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상태

로 빙의 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의미에서 샤먼은 영매와도 같다고 하였다.

이렇듯 샤머니즘과 샤먼이라는 개념은 전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랜 기원을 가진 것이며 아직도 각 나라에 살아있다. 물론 선사시대의 원시종교의 어떤 형태가 오늘날의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핵심적 체험 즉, 엑스타제와 존재의 변용이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라고 추론되고 있다.

샤머니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시 무교(巫敎)라고 하며 샤먼을 무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교는 과연 샤머니즘과 동일한 종교현상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며 무속과 같은 용어일까?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국 무교

무속은 한국의 고유신앙이며(최인학, 1989), 불교, 도교, 유교 등 한국의 여러 종교 현상중 가장 역사가 오랜 토착종교의 하나이다(김신용, 1982; 최 남선, 1986).

한국 무교란 고대 한국인의 신앙과 그 역사적 흐름, 그리고 현대 무속으로 알려져 있는 민간 신앙 현상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며, 고대시대로부터 한국문화사와 함께 살아왔으며 고등 종교를 받아들인 한국의 문화사회 속에서도 민간신앙의 형태로 살아남는 종교현상이다.

한국 무교의 원형을 단순히 현행 무속과 일치시키기란 어렵다. 오늘의 무속은 긴 문화사 속에서 많은 외래적 요소와 혼합된 것이며 또한 적지 않게 변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우리 무교는 한 원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토제, 골제인형무상(骨製人形偶像)들이 퉁쿠스족의 샤머니즘을 배경으로하는 씨족 수호신으로서의 무신상(巫神像)이거나 조상신상일 것이며 그러한 전통은 고구려의 주몽목상(朱蒙木像) 등으로 이어져 고려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동시에 단군신화에 관련되고 있다(김원룡, 1986).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잃은뒤 최남선의 민족사학은 조선주의를 부르짖고, 조선정신을 부활시키는데 그 사명을 두었고, 여러 민속학적 논문을 발표해 민속학 발전에 많

은 공헌을 하였는데 그는 단군론에서 단군신화에 나타난 조선정신을 발견하려 하였고, 단군을 건국의 시조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원시사회의 신앙에 근거를 둔 종교적사제장(당골, 巫堂)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가 불멸문화론에서 주장한 동북아시아계 여러 민족의 공동된 신앙, 즉, shamanism을 배경으로 하여서 단군신화를 이해하려고 한것은 우리 신화와 우리 문화에 대한 최초의 민속학적(folkloric)이며 또 민족학적(ethnological)인 연구의 시도였다 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학자들도 가장 신빙할 수 있는 단군신화 연구라고 동의하고 있다(김 두중, 1966; 김 정배, 1986; 이 사현, 1988). 이능화(1976)도 우리의 무속의 기원과 유래를 단군신화의 기록에 의하여 단군이 마련한 신시에 다 두고, 그 후의 여러 부족국가에서 연중행사로 지내는 동맹, 무천, 천군 등에 그 유풀이 계승되었다고 추론하였다. 요컨대 옛 한인들은 신령과의 교제를 통해 그들의 힘을 빌어 풍성한 생산과 평강을 누리며 살려고 했으며, 그 교제술로 등장한 것이 노래와 춤에 의한 제사의식이었다.

또한 한국 무속의 기원은 분명치 못한데, 그 중에서 분명한 첫 증거품은 고 신라의 금판이다. 김원룡(1986)에 의하면 신라 금판의 조형은 시베리아 샤먼의 판이며, 우리는 이 금판을 통해서 [고신라 제왕들의 샤먼교황적 면모]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라 2대왕 남해차차웅의 [차차웅]이 [무당] [존장자(尊長者)] [왕호]들의 뜻을 가졌다는 삼국유사의 설명으로도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

그 밖에 삼국사기에 고구려가 수 양제, 당 태종의 공격을 물리칠 때, 이때 요동성내에는 시조신 고주몽의 사당이 있었고, 무녀(巫女)가 그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이 반드시 안전하리라고 예언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아마도 성내 장병들의 초인적인 결과의 핵심을 이 무속종교가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밖에도 삼국지(동이전 기록)을 통해 무속에 대한 자세한 종교적 행위 의례 등을 알 수 있으며(최 길성, 1985), 무속(巫俗)이 정가종교로서 민족의 결속력과 예술산출의 기능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김신용, 1982; 유동식, 1983; 장수근, 1986).

그러나 임석재(1986) 같은 이는 우리의 무속은 제

시종교(啓示宗教)도 창도종교(唱導宗教)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반민중이 현실적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탐구하여서 얻어진 각종의 지식과 기술과 사고로써 만든,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경험내용이 침전된 민족공유의 집단적 요소로 구성된 신앙체계의 특색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무속은 단군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옛날에 기원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무속의 시초는 Mana 관념과 Anima관념과 주술행동이며 중국의 巫와 외관상 흡사해 우리의 신앙 체계도 巫라고 부르게 되고 그 사제자도 당골무당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어쨌든, 무교의 전승은 대체로 세방향으로 흘러 갔는데 첫째, 단순 전승되어 그 잔류 현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오늘의 민간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무속이 되었고, 둘째는 종교습학적 전승(宗教習合的 傳承)인데 다른 종교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 내용은 무교를 담은것이다. 예로서 불교의 팔관회나 연등회가 의형적으로는 법회이나 내용적으로는 주연을 베풀 축제였기에 내려오던 무교적인 제천의례의 전승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는 승화적 전승인데 외래 종교를 매개로 무교가 승화되어 새 형태의 종교사상으로 전개 되는 것으로 신라시대의 화랑도나 조선말의 동학운동과 같은 것이다(유동식, 1986).

고려조에 와서 무속의 신앙체계는 그 발달의 절정에 달해 12세기에는 완성되고 정착되었다(임석재, 1986).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귀족 출신의 巫女를 선관(仙官)이라고 불렀고, 선관이 국가 대제인 팔관회를 사제했었다 한다. 그러나 고려부터 巫俗은 國家제정의 권좌에서는 물러났고, 더구나 조선조에 들어서서는 위정 유학자(爲政 儒學者)에 의해 하층 사회 속에 억압되어 팔천(八賤)의 하나로서 후세무민배(惑世誣民輩)로 지탄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장수근, 1986).

이조의 승유억불정책은 차례, 기제사(忌祭祀), 묘제 등은 조직적으로 잘 정비시켰지만 지나친 형식화로 모든 국민의 종교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부가제(父家系)의 혈연적 종교로서 부녀를 제의 시했고 자연 종교성도 억압했다. 따라서 무속은 민간

에 침잠했고, 더욱 서민 부녀층의 종교로서 밀착되어 미신으로 억압되면서도 지금껏 시들을 줄을 모르며, 결과적으로 무속은 이조오백년간을 주로 무식한 부녀층의 수요에 의해서 변형되었다.

지금 거기에는 상대(上代)의 국가종교성이란 그림자도 없고, 심지어 신자인 부녀층 자신들도 미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미신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다만 본능적인 종교욕구로 굶고하고 푸닥거리도 하고 있는것이 한구 무속의 실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현재 한국무속(巫俗)에는 교리도 경전도 교원조직도, 합리성도 없다. 부녀층의 신앙심의(信仰心意)에는 장수와 부귀 등 그네들의 일상생활에서 늘 아쉬워던 소망들만이 앞선다.

巫歌를 분석해보면 저승 사자도 어딘가 위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고, 돌아갈 때에도 천상으로 돌아간다. 저승사자와 그들을 보내는 십왕(十王)은 불교에서 빌려온 것인데, 그것은 지하계에서 오지 않는 수가 많고, 내세관이란 아주 희박하며, 현실적 공리성이 앞서있는 것이 한국 무속이다(김 신용, 1982).

또한 우주관을 문제삼지 않고 하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선악의 2원칙으로서 신을 대립시키지 않고 동일신이 정황에 따라 길흉을 내리는 양가 감정적 신관을 내세우고 있다. 신을 다수 설정하고 각각 특유의 직능이 있으며 병립한다고 한다. 샤머니즘에서는 샤먼의 엑스타시를 중시하지만 무속에서는 있지도 않다. 무인은 흥분상태에 빠질 수 있으나 내면적인 질이 다른것이다. 샤먼은 이상 정신 상태에서 의례를 행하는데 무인은 입무(入巫)시는 이상자였으나 일단 무인이 되면 없어져 정상 정신 상태에서 의례를 행한다. 샤먼은 신의 은총을 얻으려고 의례를 행하지 않으며 악신을 추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샤먼은 사제, 치병, 예언, 점 등의 기능자이나 무인은 사제의 기능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속은 샤머니즘과는 기능과 의의가 다른 신앙 체계이며 무인은 샤먼이 아닌것이다(최길성, 1985).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보다는 무교라고 함이 옳을 것이며 무교는 오늘날의 무속과는 그 기원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 더욱 우리가

보는 민간신앙은 무속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류를 잘 살펴보면 무교의 중요한 성격은 음주가무의 형태로써 자기부정을 매개로한 승화라는 데 있고,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우세한 종교 밑에서 자신을 보존해온 적응력은 주목할 만하다. 즉, 한국 무교의 특성은 무한한 포용성으로 인해 문화적 풍요성을 지니고 있고, 문화적 적응성을 가진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자기 승화를 통한 창조성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곧 한국사상의 기초이념인 한과 삶과 멋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을 주지해야겠다(유동식, 1986).

Ⅲ. 질병관

어떤 문화에서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래의 질병개념이 있게 마련이다. 질병이란 한국민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모든 원시종족에서 그러했듯이 한국민간에서도 의약에 의한 치료를 하였고 병의 원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병이 그와 같은 수단으로 별로 효과가 없을때 모든 인간의 상상력이 동원되어 거기에 일정한 관념을 산출하여 질병관이라고 할만한 것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또 대대로 계승되어 하나의 형식을 이루기 까지 하였다. 이런 질병관은 심리학 적 입장에서 볼때 두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는데 첫째, 그 민족고유의 문화적 바탕위에 생긴 사고방식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고 둘째로는 지식 수준이 낮고 합리적 사고가 비교적 덜한 기층민의 소산이므로 오히려 합리적 기능 너머에 있는 정신세계의 제 요소 즉, 무의식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래의 질병개념은 비록 그것이 원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에 속할 뿐 아니라 사물을 인지하는 양상에 따라 질병개념도 다소 다르게 파악되고 있는 까닭에 전통적인 질병개념이 어떻게 되어있는나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개념에 영향을 주어진 전통적, 문화요소가 있다면 샤머니즘인 것이다(김 광일, 1993; 이 부영, 1970; 1993).

1) 샤머니즘의 질병관

요컨대 고대 동방민족 특히 동북 아세아계통의 문화적 원류를 가진 우리 민족들은 한 민족과 같이 모든 질병 및 재화들이 악정(惡情)으로부터 발생되며 그것은 무당, 샤먼같은 마술사에 한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북아시아 샤먼의 주요한 기능은 역시 주술적인 치료 기능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믿었는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영혼의 유괴”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믿음이었다. 이들이 믿기로, 영혼이 길을 잃거나 도둑 맞을 때, 그 영혼의 임자는 질병에 걸리며 질병들을 치료하려면 우선 그 영혼을 찾아내고 이를 붙잡아 병자의 몸속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믿었다. 아시아의 일부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몸속에 주물이 들어가거나 그 사람의 영혼이 악령에 들릴 때, 질병이 생긴다고 믿었다. 따라서 병을 고치려면 그 주물을 뽑아내거나 악령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병의 원인이 두가지 - 악령에 들러 악화된 영혼이 유괴까지 당할 경우 - 일 때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샤먼은 이 영혼을 찾아내는 일과 악령을 쫓는 이중의 치료법을 써야 한다.

영혼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많은 미개민족이 그렇듯이 북아시아 사람들도 한 사람에게는 자그마치 세 개 혹은 일곱개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경우 이 영혼 중 하나는 무덤에 남고 하나는 저승으로 가며 나머지 하나는 천상으로 올라가며 여러 개의 영혼 중 적어도 하나는 죽는 순간에 사라지거나 악령의 먹이가 된다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죽는 순간에 악령에게 먹혀야 하는 영혼 혹은 사자의 나라로 내려가야 하는 영혼이 이리 저리 날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런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샤먼 뿐이다. 왜냐하면 오직 샤먼만이 이런 영혼을 “볼 수 있고” 이런 영혼을 쫓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샤먼만이 환자의 영혼이 몸을 떠났음을 알아보고, 점신상태에서 이를 붙잡아 환자의 몸 속으로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

인 것이다. 이러한 치료과정에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할 경우도 있는데 희생제물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어떤 형식의 희생제가 필요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샤먼 뿐이다. 환자의 육체적 건강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정신의 불균형을 정상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까닭은 통상 성(聖)의 영역에 속하기도 하는 저승의 권능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기는데서 생기기 때문이다(Elade, 1992).

이렇듯 고대 샤머니즘 특히 우리 조상이었던 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전형적인 질병관은 질병의 원인을 영혼의 유괴 또는 소외로 간주하였다.

2) 무속의 질병관

무속의 질병관은 인간의 질병관, 원시종족의 일반적 질병관에서 빌어온 것이므로 그 종류에서 큰 차이점이 없고 다만 그 강조하는 바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나 다른 종족이나 원시적 질병관은 대체로 비슷한데(이 부영, 1970) 우리나라 무속의 경우 질병관은 다음과 같다.

Clements(1932)의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김 광일:1972, 1991;김 두중, 1966;이 부영,1968, 1970;정민성,1990;최문식, 1993) 첫째, 우리나라 무속에서 질병의 요인으로 가장 무게가 큰 개념은 Spirit intrusion 즉 憑依現象이다. 정신질환 뿐아니라 다른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빙의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신이 짊혔다”, “신이 들었다”, “살이 끼었다”, “신이 싸웠다”는 말로 표현되고 감기를 앓아도 감기 “드셨다”고 이야기 한다. 병을 앓는 일 때문에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면 조상신이 몸에 들어서 병을 앓게 됐다는 식의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개념이 모든 질병진단에 몇 %나 되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으나 정신병의 경우는 모든 원시적 개념의 59.4%나 된다는 조사보고를 보더라도 빙의개념이 중요성을 알 수 있다(김 광일, 1972).

사람의 길흉화복은 모두 귀신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는 전통적 사고는 질병 역시 귀신의 작용으로 생각하게 했다. 뿔에서는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는데 영은 혼과 귀로 다시 나누어지고 인간이 죽으면 이 셋이

분리되어 魂은 천상에 鬼는 공중에 肉 즉,魄은 지하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터전인 이승과 죽은자의 세계인 저승은 같은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보조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승의 자연환경, 사회구조, 사회생활, 인간심리는 이승과 동일하며 저승 존재들도 음식, 옷, 집 등을 필요로 한다(김기운, 1977; 이필영, 1978). 그러므로 이승 사람들은 저승의 신과 조상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섬기며 그 댓가로 신과 조상은 이승 사람들과 자기 후손을 보호하고 복을 준다. 저승 존재를 충족시키지 못할때는 병을 비롯한 재앙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저승을 이승의 복사판이라고 본다면 귀신이나 조상을 불편하게 하고 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우리는 병이 나는것을 병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병이 신체내부의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밖에서 들어 온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말해준다. 즉, 질병을 맡은 귀신이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병이 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람이 겪는 질병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병마다 그 병을 일으키는 질병신이 있고, 발병한 날짜, 천간(天干), 지지(地支)에 따라 악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전해 오고 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는 질병을 내쫓아야 한다. 질병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천연두를 옮기는 역신을 '손님마마'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높여 부르거나 음식을 차려 놓고 가무로 즐겁게 한 다음, 노잣돈을 주어 보내거나, 신명을 청하여 이들 악귀들을 쫓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어에 있는 덧과 탈도 다 외부로부터 덤벼든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대감을 덧내다" "남건드린 탓이다" 하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덧과 탈은 대개 외계의 악세력이 인체에 가해졌기 때문이며, 또 무술적으로 퇴치하는 일을 "가신다", "뎀다", "푼다" 함은 다 덤벼든 악세력을 탈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러한 류의 악세력을 '뎀것'이라 함은 점유세력을 의미하고 또 '긋것'이라 함은 지하적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주강현, 1992). 이렇듯 질병은 어떤 영적 존재, 즉 악정 같은 것이 체내에 침입함으로써 일어나고 그것이 체외로 추출됨으로써 질병이 치료된다는 관념이 깊이 존재하였다. 둘째로는 Violation of

Taboo(금기침해)의 개념이다.

Taboo를 어겨서 병이 생긴다는 개념이다. 워낙 Taboo는 하나의 사회적인 규범이요, 그래서 Taboo를 어긴다는 일은 행위자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속에서 Violation of Taboo의 개념은 이런 개인의 책임의식이 비교적 희박한 것 같다. 출산시 혹은 임신 중 임부가 지켜야 할 Taboo를 어긴 일, 性的 Taboo를 어긴 일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금기파괴인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병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의 잘못 탓, 묘자리 탓, 가구, 집, 나무의 위치가 동서남북 중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탓, 혹은 집 수리 하는 날짜, 이사하는 날짜, 결혼하는 날짜, 집떠나는 날짜 등 날짜를 잘못 택한 탓(손이 없는날 이라 표현한다), 집터가 나쁜 탓 등으로 외계의 사태가 잘못된 탓에 신이 노하여 병이 생긴다는 개념이다.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금기파괴에 속한다고 본다. 첫째와 둘째 개념은 대개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의 개념은 영혼일탈 Soul-loss이다. 이 개념은 주로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신 나갔다" 혹은 "골이 비었다" "정신 잃었다"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신병의 경우 Soul-loss의 개념은 모든 원시적 개념의 9.7%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김광일, 1972). 그러나 실제 오늘날의 무속사회에는 병이 영혼일탈이라고 진단내리는 경우를 그리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

넷째의 개념은 물 침입 Object-instrusion이다. 어떤 물체가 몸안에 들어와 병이 생긴다는 이 개념은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극히 드물다. 부정한 음식 혹은 물을 먹어서 병이 생긴다는 생각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썩은 부정한 고기를 뽑아 "체중"을 고친다는 행위도 이 Object instrusion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본다. "부정타다는" 말에 "살이 꺾다"는 뜻도 있어 혼령 침입(spirit instrusion)과 그 의미가 혼합되어 있다.

다섯째는 소위 질병저주 Disease sorcery이다. 저주를 해서 병이 생긴다는 개념은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했던 인상을 준다. 이 능화의 <조선무속고>

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이 저주가 너무 많아 요사스럽다고 해서 금부령까지 내린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런 경향은 이조 시대에도 꽤 남아 있었다. "Evil Eye"는 주로 지중해연안지역에 분포되고 있는 관념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마술을 써서 타인을 괴롭히는 예는 원시민족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관념이다. 우리나라 민간에도 여러가지 행위로 타인을 저주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별로 보고된 것이 없고 과거에도 어느만큼 적극성을 띄우고 있었으며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까지 했는지 확실치 않다. 모락이라든가 중상, 음모라는 발달된 black magic에 매수되어 원시적인 저주는 그 세력을 잃고 소극적으로 시행되어 왔는지 모른다.

우리나라 민간에서 Black Magic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고저 하기보다는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과 같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다. 여하튼 최근 우리나라 무속사회에서 이런 개념은 극히 희박한데 Disease Sorcery를 행하는巫师들을 강력히 금지시켜 왔던 체제의 영향으로 자연 도태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밖에 "운명의 탓"이란 개념도 있다. "타고난 팔자"란 개념은 Clements의 분류에는 없지만 이 역시 원시적 개념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고대나 원시사회의 질병관이 모두 그러했듯이 무속사회의 질병관도 특이한 원초적 총체주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 정신과 신체장애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2. 재앙, 불행과 병은 모두 서로 연관된다. 3. 결국 한 개인의 병은 그 가족, 그 공동체, 환경, 자연, 우주, 모든시간, 공간과 연결된다. 물론 이러한 질병관은 무속사회의 세계관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 발전되어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것이며 고대 샤머니즘의 질병관과는 달리 독특한 우리나라 질병관과는 달리 여러면에서 변용된 것이다.

IV. 간호에의 의미

샤머니즘은 금세기 초반부터 학자들에 의해서 재발견되고 재해석되어 샤머니즘 문화권에서 샤머니즘의 세계관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양 문화가 제공하는 치료방법보다 그 민족의 문화가 제공하는 치료의학

이 훨씬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창되기 시작했고 각종 연구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이 부영, 1993).

간호의 목표는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질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두고있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은 대상자의 경험을 공감하고,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간호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민간차원의 어떤 종교들이 민간의 신념과 가치를 근거로 하여 인간 고유한 속성으로서 어떻게 잠재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간호학의 실천뿐 아니라 전문직의 발전에 필수적인 작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간호분야에서도 문화적인 재해석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가 간호연구에 임하거나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들에서 현재 성행되고 있는 무속에 대해 알아야할 몇 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무속도 하나의 우리의 고유 문화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해해야 한다. 샤머니즘은 전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석기시대 이래의 유구한 전승을 이뤄왔으며 여러 국가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 더군다나 샤머니즘의 본원지는 고대 우리 조상들의 무대였던 시베리아 지역이었다. 무속은 여러가지 우리들의 가치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들의 옷속에 감춰진 무의식 구조이다(최 길성, 1985). 이것은 복합적 조직이며 이 자체가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 승화시켜주는 문화적 승화조직이다. 따라서 무속의 폐단을 노한 고 도외시하기보다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 입장의 학문적 태도 보다는 여러 학문분야의 공동연구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개의 사람들은 무속적 질병관과 현대적 질병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기본정서에 면밀히 흐르고 있는 巫는 병고침의 기능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성립된 신앙이며(최 길성, 1985), 이런 기록들은 조선무속고, 왕조실록 등의 여러 사료들에 의해 보여지고 있고 현대의학이 도입된 이후에도 무의 치료행위를 민심을 현혹케 하는 행위나 불법으로 간주하여도 서민층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의뢰하고 있다. 심지어는 과학적인 질병개념을 알고 있는 의료인조차도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 오

늘날 무에 의뢰되는 질병들은 의학에서도 뚜렷하게 원인을 제시해주지 않는병, 원인을 밝혀 주더라도 뚜렷한 치유책이 없는 병, 치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병 증상이 지속되고 재발되는 병임을 알 수 있으며 과거에 먼저 무에 의뢰하고 증증이거나 악화된 경우 의에 의뢰하던 것과는 달리 의에 먼저 의뢰하여 의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들임을 알 수 있다(조 명옥, 1990).

특히 과거 질병의 돌봄은 가사생활을 담당하였던 여성들이 대부분 담당했었고 이들 여성들의 돌봄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영향, 남존여비, 성차별로 인해 알맞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바, 문화속에서 어떻게 억압되고, 차별되고, 또 어떤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셋째, 무속치료에서는 인도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무속의 대상자는 이 세상이고 인간이지 저 세상이나 초 자연적 존재는 아니다. 무속의 신은 인간과 별 다를 바 없으며 서양에서 흔한 저주의 관념이 한국 무속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도 다 잘 대접해서 인간을 위한 존재로 바꾸어버리며 굿에서 소원을 빌리고 하면 한결같이 가정과 마을의 화목과 평화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개인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존에서 보람을 찾는 한국적 생활관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평안을 위해 무당이 존재하고 있음이 높이 살만하며 간호의 근본이념인 인본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무속치료의 정신치료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치료의 본질이 주술적인 요소가 대부분이지만 현대 정신 치료에서 보는 여러 치료적 요소들이 합리적으로 존재한다. 이 안에는 인간 무의식을 순화 시켜나가는 상징적 해결양상이 있다. 무속은 한국인의 정신적 갈등과 욕구를 가장 잘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최 인학, 1989). 일부 심인성 질환, 히스테리, 불안신경증 등의 경우 굿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며 또한 가족의 마음을 위안해 주는 집단치료적인 의미도 있다고 한다(김광일, 1991).

김(1992)은 점과 굿은 카타르시스, 제반용(abrection), 암시, 최면,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 양성, 전이 등의 기제를 통해 불안, 갈등을 일시나마 해

소해 주는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당은 마을의 consultant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인자한 어머니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굿에서 무당이 한 개인의 슬픈사연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compassion을 볼 수 있다. 원래의 통구스족에서 조차 샤머니즘이 존재해야 하는 주 원인을 정신적인 치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이오세지, 1988).

다섯째, 개인의 책임의식의 결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투사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태의 원인을 초자연적 조화나 존재에 두고 개인적 자기문제란 있을 수 없게된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신상황에 음성적 영향을 다분히 미치고 있는데 투사란 한번 반복되면 자주 반복되기 마련이며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직면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더 자아의 나약함과 현실도피의 경향을 조장하게 되어 정신분열의 호발여건 까지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결국 문화적 요인으로서도 작용하여 한국인의 인격에 꽤 많은 영향을 주어 왔음을 알아야겠다(김광일, 1972, 1991).

V. 결 론

앞에서 샤머니즘과 무교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더불어 각각의 질병관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샤머니즘과 무교는 용어상 매우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며 명확한 개념정의 조차도 잘 구별이 안되고 있다. 무교는 옛부터 우리 한국 문화를 지배해온 종교중에서 가장 한국적이며, 주체적인 민족문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의식 표면에서도 원시적인 것으로 멀리 당하더라도 의식의 심층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특히 위기나 갈등상황시 의지하고 있는 신앙이다. 샤머니즘은 원래 인류의 가장 오랜 문화이며 고대의 점신술이며 종교이고 샤먼도 무당이 아닌 사제, 치료자, 영혼의 인도자, 지도자, 신비가이고 지금의 무속과 무당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관도 샤머니즘은 영혼의 유괴가 주된 개념이나 무속에서는 오히려 영혼의 침입인 병의현상, 금기침해, 영혼일탈, 물침입, 질병저주, 타고난 팔자라는 개념으로

많이 달라졌고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샤머니즘 보다는 정확하게 우리는 무속이라 표현함이 옳을 것이다.

생물학적 질병(Disease) 보다는 질병(illness)의 차원에서 우리는 좀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전통 무속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무속도 우리 고유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질병관과 현대적 질병관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무속의 인도주의적 경향과 정신치료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 책임의식결여라는 부정적 영향을 우리 문화에 끼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문화에 맞는 한국적 간호의 중요성에 시야를 확대시키면서 한국문화에 영향을 주는 측면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이루어 지고 있는 때이다. 질병, 건강에 대한 대상자 자신이 견해가 중요하다는 관심이 증가하면서 간호사들은 대상자가 자신의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무속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이해하고 간호현장에서 질적인 돌봄을 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김 광일(1991), 한국전통문화의 정신분석, 교문사
 김 두중(1966), 한국의학사, 탐구당
 김 신용외(1982), 한국의 민속문화, 시사영어사
 박 계홍(1973), 한국민속연구, 형설출판사
 유 동식(1983),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 윤기역, 마르치아 엘리아데(1992), 샤머니즘, 까치글방
 정 민성(1990), 우리 의학의 역사, 학민사
 최 길성역, V.디오세지, M.호팔(1988),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민음사
 최 길성(1990),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최 길성(1985), 무속의 세계, 정음문고
 이 능화(1976), 조선무속고, 백록출판사

Henry, N.Michael(1962), Studies in Siberian Ethnogenesis, University of Tronto Press 1.
 강 신표(1992), 조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간호와 한국문화, 수문사

[잡지 및 정기 간행물]

Clements, F. E.(1932): Primitive concepts diseas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American Archcology and Ethnology. 32 : 185-252.
 김 광일(1972), 한국 샤머니즘의 정신 분석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1(2), 57-653.
 _____(1972), 한국인의 신체화 경향에 관한 논고, 최신의학, 15(12), 34-374.
 김 기운(1977), 한국샤머니즘의 내세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 원룡(1986), 한국선교사 시대의 신상에 대하여, 한국무속연구논문선, 일조각, 221-233
 김 인희(1986), 한국무속연구사, 한국무속연구논문선, 일조각, 103-107
 김 정배(1986), 단군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군신화연구, 온누리, 94-159
 유 동식(1986), 한국무교의 종교적 특성-외래종교와의 교섭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무속 연구 논문선, 일조각, 235-250
 이 광규(1992), 서론, 한국민속학 개설, 26-29
 이 능화(1986), 조선의 무속, 한국무속 연구논문선, 일조각, 181-219
 이 부영(1968), 한국 무속관계자료에서 본 의 현상과 그 치료(제1보), 신경정신의학, 7(2), 5-13
 _____(1970), 의 무속적치료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 특히 분석학적 요법에 관계하여, 최신의학 13(1), 75-89
 이 사현(1988), 한국의 만속학 연구, 한국민속학논고, 학연사, 11-15
 이 필영(1978), 북아시아 샤머니즘과 한국무교의 비교연구-종교사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 석재(1986), 한국무속연구사설, 한국무속연구논문
선, 일조각, 1-3
- 장 수근(1982), 한국의 무속, 한국의 민속문화-국제
문화재단편, 시사영어사, 69-77
- _____ (1986), 삼국유사의 무속기록고찰, 한국민속논
고, 계몽사, 131-162
- 조 명옥(1990), 건강, 질병 행위에 나타난 무속적 요
소, 이화간호학회지, 23, 87-96
- 주 강현(1992), 굿이란 무엇일까, 굿의 사회사, 웅진
출판사, 12-29
- 최 남선(1986), 샤만교답기, 한국무속연구논문선, 일
조각, 129-161
- 최 문식(1993), 한국인의 귀신관, 민속적 삶의 의미,
한울, 90-93
- 최 인학(1989), 한국민속의 북방계요소, 한국민속학
연구, 인하대출판부, 20-21
- _____ (1989), 조왕의 성격, 한국민속문학연구, 인하
대출판부, 106-109
- 최 영희(1992), 간호학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문화
간호, 간호와 한국 문화, 수문사
- Schroder.D.(1964):이 부영(1993), 무속과 정신치
료, 임상예술학회에서 인용함
- 堀一郎: 유동식(1983)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에서
인용함.

Nursing Considerations on Korean Shamanism

-National Medical Center Junior College of Nursing-

Kim, Aee Lee

We have examined the development and conceptual definition of shamanism and divination through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various illnesses. However, the terminology has been inconsistent and its real conceptual meaning is not well defined.

Divination is a historically dominant religious practice which represents the core of Korean folk culture. Despite prevalent prejudice toward its primitive nature, we cannot deny its profound relationship to our unconscious, especially our reliance on its religious role whenever we face crisis or conflict. It is therefore appropriate to use the term divination in this context.

Shamanism originated as humanity's oldest mode of communication with divine - a religion. The shaman is not a sorceress but a priestess, a healer, a spritual guide, a leader, a mystic, traditionally having a different significance from that of the contemporary diviner or "shaman".

The traditional concept of illness has been profoundly altered to serve new functions: while the shamanistic view is based upon spiritual abduction, divination on the other hand invokes concepts of spiritual invasion phenomena such as spirit intrusion, taboo violations, soul loss, object intrusion, deviations from the appropriate spiritual path besiegement, and curess or predestination (the idea that the sufferer is born with his fate).

We should therefore try to understand divination from a more holistic point of view, rather than attempting to fit it into the standrd medical illness. We must recognize divination as a phenomenon within our culture, since most people have a mixed conception of illness arising from a combination of divinational and modern concepts.

Since divination's humanistic approach is ingrained in our people, to irresponsibly ignore the spiritual aspects of treatment would exert a negative influence on our culture.

Especially now, while attection is focused on Korean culture and its influence on every aspect of our lives,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expand our horizons in order to create a way of nursing more suitable to Korean culture. Increased importance is now being given to the opinions of patients themselves about their own illness and health, so nurses should seek to understand how patients accept their illness and what particular kinds of help they expect to receive.

Consequently, an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divinations will enable us to utilize these characteristics on the job in order to enhance nursing care.